



미 증시, 금리 부담, 소비심리지수 부진으로 급락

미국 증시 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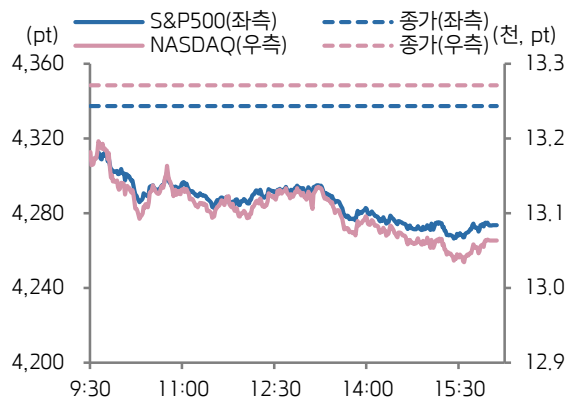
26 일(화) 미국 증시는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 연준위원의 매파적인 발언, 컨퍼런스보드소비자 신뢰지수 부진 및 주택가격지수 상승 등이 하방압력으로 작용하며 급락. (다우 -1.14%, S&P500 -1.47%, 나스닥 -1.57%)

닐 카시카리 미니아폴리스 연은 총재는 올해 금리를 0.25%p 추가 인상한다면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예상. "이미 인플레이션을 낮추는데 상당한 진전을 보였으며 탄력적인 경제활동을 고려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경제 연착륙은 가까워보인다"고 언급. 연착륙 확률과 인플레이션 고착 확률을 각각 60%, 40%로 제시. 2%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금리가 예상보다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 세계 3 대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미국 정부의 섯다운이 현실화될 경우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것으로 경고. "다른 AAA 등급 국가들에 비해 미국의 거버넌스와 제도가 취약하다는 점을 (섯다운이) 보여줄 것"이라고 언급.

미국 9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는 103.0(예상 105.5, 전월 106.1) 기록하며 부진, 4개월만에 최저치.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정치권의 예산 교착에 따른 정부 섯다운에 대한 불안감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 7 월 S&P/CS 주택가격지수는 YoY 0.1%(예상 -0.3%, 전월 -1.2%), MoM 으로는 0.6% 상승하며 6개월 연속 상승세. 고금리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0 여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급등하면서 주택 구매 수요는 줄었지만, 과거 저금리로 집을 산 주택 보유자들이 기존 집을 팔기를 유예하면서 주택 공급이 더 크게 줄어든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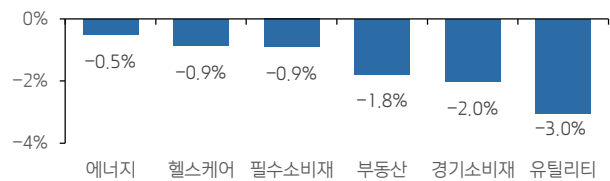
전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에너지(-0.5%), 헬스케어(-0.9%), 필수소비재(-0.9%) 낙폭이 가장 작았고, 유틸리티(-3%), 경기소비재(-2%), 부동산(-1.8%) 낙폭이 가장 컸음. 아마존(-4.03%)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아마존이 지배적인 온라인 시장 점유율을 이용해 인해 온라인 상거래 시장의 경쟁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영향으로 급락. 테슬라(-1.16%)는 EU 가 유럽으로 수출되는 값싼 중국산 전기차 제조업체에 대해 부당한 보조금을 받고 있는지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는 보도에 하락. 중국 제조업체와 합작회사를 운영하는 BMW AG, 르노 SA 등 일부 유럽 기업도 테슬라와 함께 조사 대상에 포함될것으로 보도.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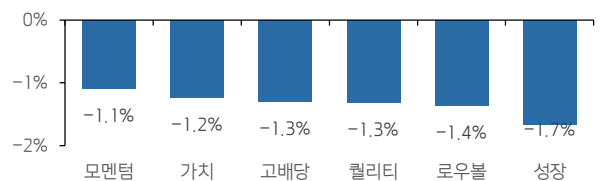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코스피	2,462.97	-1.31%	USD/KRW	1,348.74	+0.93%
코스피 200	326.90	-1.41%	달러 지수	106.17	+0.16%
코스닥	827.82	-1.35%	EUR/USD	1.06	-0.01%
코스닥 150	1,302.18	-1.41%	USD/CNH	7.31	+0.01%
S&P500	4,273.53	-1.47%	USD/JPY	149.04	-0.02%
NASDAQ	13,063.61	-1.57%	채권시장		
다우	33,618.88	-1.14%	국고채 3년	3.897	+1.6bp
VIX	18.94	+12.07%	국고채 10년	4.055	+4bp
러셀 2000	1,761.61	-1.27%	미국 국채 2년	5.121	-0.4bp
필라. 반도체	3,329.62	-1.77%	미국 국채 10년	4.536	+0.2bp
다우 운송	14,819.23	-1.87%	미국 국채 30년	4.675	+2.3bp
유럽, ETFs			원자재 시장		
Eurostoxx50	4,129.18	-0.92%	WTI	90.49	+0.11%
MSCI 전세계 지수	654.68	-1.2%	브렌트유	93.96	+0.72%
MSCI DM 지수	2,844.83	-1.21%	금	1918.8	-0.05%
MSCI EM 지수	947.18	-1.07%	은	22.95	-0.84%
MSCI 한국 ETF	58.70	-3.17%	구리	362.5	-0.67%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3.17% 하락, MSCI 신흥국 ETF 는 1.41% 하락. 유렉스 야간선물은 0.73%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352.11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4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부정적인 대외 환경이 국내 증시 전반에 미치는 영향 2. 장기 연휴 돌입에 따른 장중 관망심리 심화 여부 3. 최근 4 거래일 연속 급락에 따른 저가 및 기술적 매수세 유입 가능성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9 월 FOMC 여진 속에서 JP 모건 체이스 회장의 "연준 기준금리 7% 발언"등이 투자자들의 고금리 부담을 누적 시키고 있는 모습. 그 가운데 한국 증시는 4 거래일 간 장기 휴장에 돌입하는 만큼, 이 기간 동안 발생하는 미국 증시의 움직임과 시장금리 변화에 주목해야 하며 관련 변수들을 지켜볼 필요.

우선 1) 금리 변화에 영향을 주는 파월의장 등 주요인사들의 연설, 2) 코스피 이익과 직결된 9월 한국 수출 및 9월 ISM 제조업 PMI 등 경제지표들이 관전 포인트. 이에 더해 3) 현재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9월 30일이 시한으로 설정된 미 의회 예산안 통과 여부가 중요.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 내 강경파들이 예산 추가 삭감, 우크라이나 지원 반대 등의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섀도우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

외신들을 종합해보면, 1개월짜리 임시 예산안을 포함해 정해진 기간 내에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게 주된 분위기. 실제 섀도우 시 복지, 교통, 안보 등은 정상적으로 수행되나, 비필수 공무원 업무 등 여타 업무들은 일제히 중단될 예정. 최근 미 의회조사국에서는 연방정부의 지출이 전체 GDP 의 약 7%를 차지하며, 섀도우 시 매주마다 성장률이 0.15%p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등 섀도우발 경기 충격은 불가피한 상황.

과거 20차례의 섀도우 사례를 살펴봤을 때, S&P500 과 코스피의 평균 등락률은 각각 +0.1%, +0.5%로, 그 충격은 제한적이었음. 또 섀도우 평균 기간이 8일(최고 34일, 최소 1일)에 그쳤다는 점은 시장참여자들로 어차피 예산안 합의는 시간 문제라는 결론을 내리게 만들 수 있는 유인을 제공. 섀도우가 10월 내내 발생 하더라도 ISM 제조업 PMI, ADP 고용, 산업생산 등 민간과 연준 집계 데이터들은 정해진 스케줄 대로 발표되는 것은 맞음. 하지만 GDP, 고용, CPI 등 통화정책 결정과 직결된 데이터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 증시에 노이즈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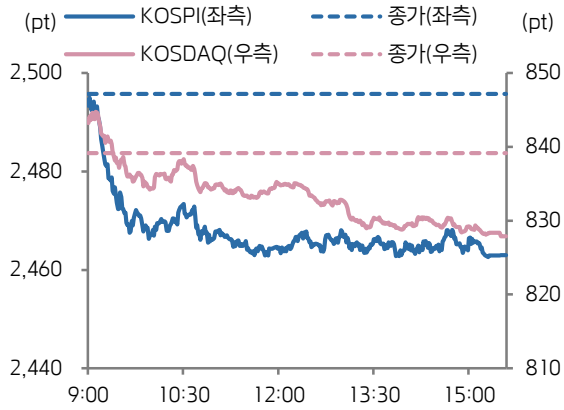
이를 테면, A) "섀도우 충격은 일시적이므로 연준은 신경 안쓸 것 vs 섀도우 이외에 고유가, 학자금 대출 상황 부담까지 맞물리게 되면 연준은 매파 스탠스를 철회할 것", B) "섀도우는 안전자산 선호 유발(금리 하락) vs 정치권의 불협화음은 미국 신용등급 전망 악화(금리 상승)"와 같은 서로 다른 해석들이 증시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음. 결국, 섀도우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증시 입장에서는 베스트이지만, 설령 섀도우가 현실화되더라도 10월 12일 예정된 9월 CPI 발표 시점까지 장기화되지 않는 이상 자산 가격 전반에 걸친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

전일 국내 증시는 그 전일 미국 증시 반등에도, 9월 FOMC 여진에 따른 금리 상승, 원/달러 환율 급등, 미국 섀도우 불확실성 등 부정적인 대외 환경에 노출된 여파로 하락 마감(코스피 -1.3%, 코스닥 -1.4%).

금일에는 미국 의회 예산안 처리 지연 우려, 고금리 장기화 부담 등 대외 불안 요인 속 코스피 200 일선 하회에 따른 추세 전환 불안, 장기 연휴를 앞둔 관망심리 심화 등으로 약세 흐름을 보일 전망. 다만, FOMC 이후 4거래일 연속 급락(최근 거 4거래일 누적 등락률 코스피 -3.8%, 코스닥 -6.2%)에 따른 저가 및 기술적 매수세 유입도 예상되는 만큼, 장중 하락 압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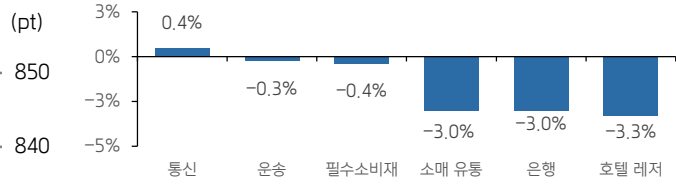
한편, 전일 미국 증시에서 아마존(-4.0%)이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반독점 소송을 당했다는 소식이 급락했으며, 그 여파로 여타 빅테크주들도 동반 약세를 연출한 상황. 국내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겠으나, 금리 상승 문제와 맞물리면서 국내 성장주 투자심리에 제약을 가하면서 수급 변동성을 확대시킬 가능성에 대비.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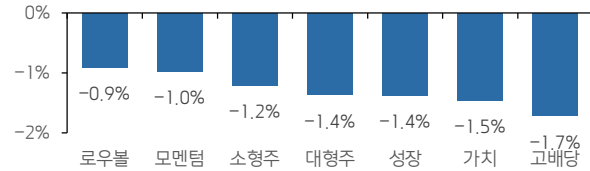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